

손혜원 “탈당하고 SBS 등 언론사 고소”

“당적 내려놓겠다 쉽지 않은 결정...당에 더이상 부담 안 줄 것”

문광위 간사 내놓고 총선도 불출마...의원직 사퇴는 수사 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상임위 간사직에서도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닷새 만에 내린 결정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일대 건물과 토지 매입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를 비롯한 언론사들에 대해 손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고소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며칠에 걸친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더 이상 온 국민을 의미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탈당 의사를 굳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제 관련 문제니까, 제 결백 관련 문제이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해결하겠다”며 “제 분신 같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탈당 의사를 피력했으나 당 지도부에서 만류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홍 원내대표는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문제에 대해 만류를 많이 했으나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 해명과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던 안 되겠다고 했고 당적을 내려놓고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왔다고 했다.

손 의원은 “저는 제 임기동안 여의도 어법보다는 40년간 익혀온 대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에 집중하며 일을 해왔다”며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인, 전통문화를 담당하는 상임위를 위해 제가 꿈꾸던 세상을 위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좋은 경관이 있는 곳, 좋은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 더 이상 사라지

기 전에 제가 발견한 곳이 바로 목포였다”며 “(목포) 건물 근처에서 가슴이 떨렸다. 이런 집들이 아직도 다닥다닥 붙은 채로 헐리지 않고 남아 있는 게 너무나 실망 그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목포 부동산 매입 경위를 설명했다.

손 의원은 또 자신에 관한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를 비롯한 언론사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 스스로 지난 며칠 간 왜곡뉴스 가짜뉴스에 대응하면서 싸웠다”며 “SBS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까지 기사 200여건을 캡처해서 다음 주 초 바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특정 방송사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SBS가 저 한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제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 개인 명예를 위해 고발(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며 “제게 쏟아진 부동산투기, 차명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 관련한 왜곡기사를 검찰에 모두 수사의뢰 하겠다”고 했다.

이들러 손 의원은 “문체위위원회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겠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에서도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손 의원은 민주당 탈당과 상임위원 사임에 따라 문광위 여당 간사직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손 의원은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이 발표 뒤에 야당의 많은 분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하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가 (일치하는 게) 한 가지라도 나오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일축했다.

손 의원은 “제게 쏟아진 부동산 투기, 차명재산, 부당한 압력행사 의혹 관련 언론사 왜곡보도를 검찰에 모두 수사 의뢰하고 엄정한 판단을 받겠다”며 “그 기사들에서 언급한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정은 3월말~4월 답방설?

靑 “추진·논의 없어” 부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오는 3월 말에서 4월 중에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앞서 아시아 신문은 19일 우리 정부가 3월 말~4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에서 “추진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2월 말’로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

도 향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답방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 간에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경우, 이를 동력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2월 말’로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싱턴DC 백악관 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현지시간) 덴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국장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트럼프, 김정은 친서 받는 사진 공개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서 확대 양자회의도

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DC 백악관 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덴 스캐비노 2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은 사진과 함께 올린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전달받았다”며 이후 “확대 양자회의가 오벌 오피스에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만남에 대해 “생산적이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

스캐비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이날 공개했다. 이 회의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볼론 미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배석한 것으로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박지원에 “배신의 아이콘·노후한 정치인” 원색 비난

“같이 검찰 수사 함께 받자”...재개발 과정 개입 의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소식을 발표하면서 박지원 민주당화당 의원을 향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손 의원은 “사실 박지원 의원님과 바닷가 최고지리에 고층아파트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검찰조사를 받고 싶다”며 박 의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또 “저는 (다음 총선에) 안 나올

건데 국민들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배신의 아이콘의 노후한 정치인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시재생의 뜻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고도 했다.

손 의원이 언급한 배신의 아이콘은 민주당을 탈당한 박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마포율이 지역구인 손 의원은 목포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가 (총선에) 나갈 일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사람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다. 그래서 목포를 아를 담고 제대로 도시재생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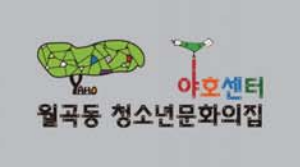
앞서 목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지난 19일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손 의원을 향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 물을 다 흐린다”며 “300여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역방을 개입했어야 옳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저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 손 의원은 이실직고 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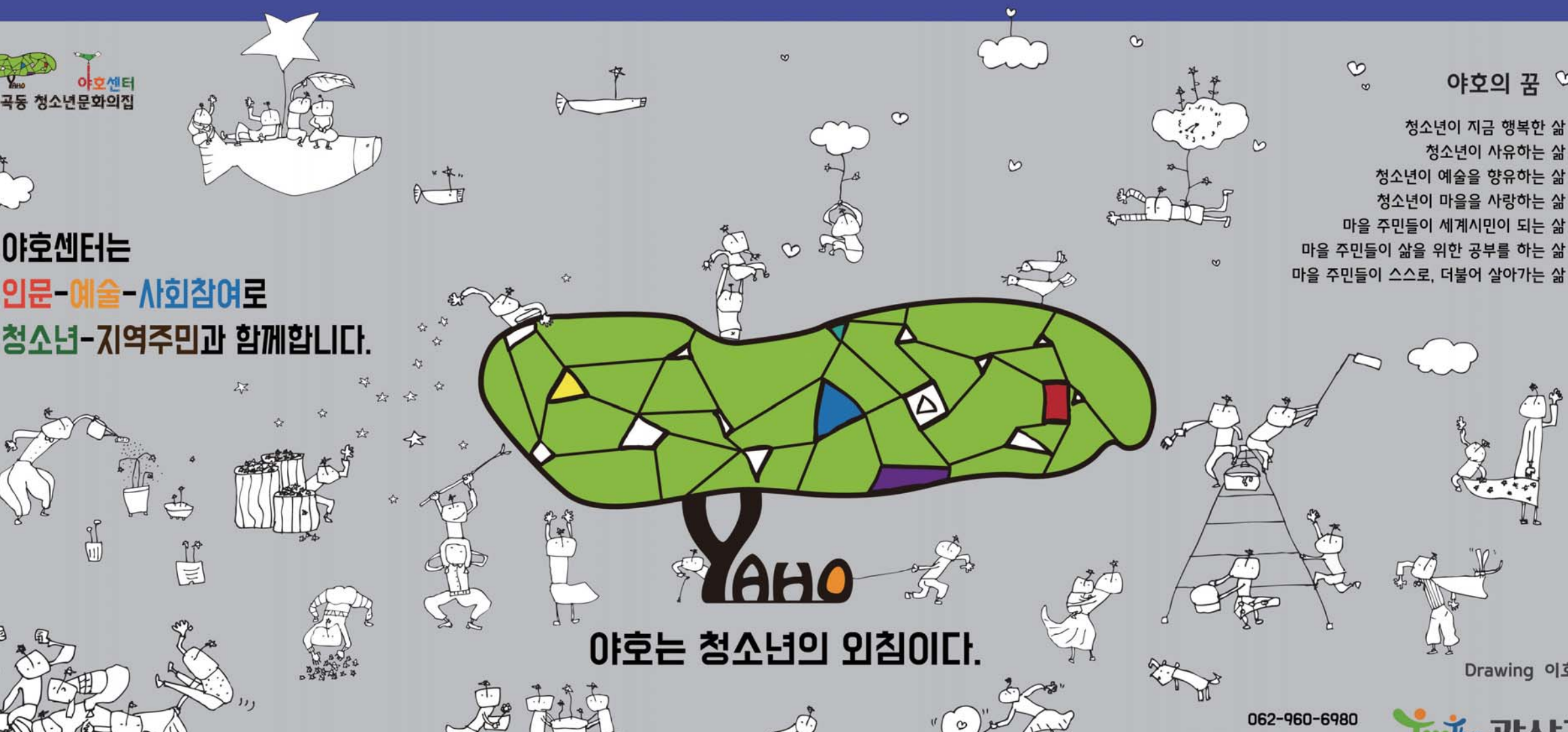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 사실을 밝히시길 바란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저는 곰이다. 재주는 분명 박지원이 부렸다”며 손 의원 관련 언급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손 의원은 전날 박 의원을 향해 “검찰조사 같이 받자”고 경고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조사 하는데 박지원 의원님을 빼뜨렸다. 목포시장이 세 번 바뀔 동안 계속 목포지역 국회의원을 하겠다”며 “그 기간 중에 서산·온금지구 고도제한이 풀렸다. 시간이 지나며 가리웠는 듯 사라지는 듯 하다가도 서산·온금지구 고층아파트는 계속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지역 재개발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한 것처럼 의심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